



광주여대 미용과학과 학생들이 미용교사 시험에 대비해 실습을 하고 있다.

임용고시 명문 광주여대 우뚝

광주여대(총장 이선재)가 사범계열 학과들의 연이은 임용고시 합격생 배출로 교사 임용 명문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10일 광주여대에 따르면 유아교육과는 2014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고시에서 광주시교육청에 우예경, 전북교육청에 강진주 학생이 각각 합격, 최종 2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100% 합격(2명 모집에 광주여대 2명 합격)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수교육학과 관계자는 “이번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의 임용시험 합격 성적은 학생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교사 진출의 열망, 학과 소속교수들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수험 지도활동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최고의 미용교사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미용과학과는 전국 교육청별로 실시된 총 30명 모집의 중등교사(미용) 임용고시에서 12명의 미용과학과 졸업생들이 최종 합격했다.

교육청별 합격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1명(김민정), 인천시교육청 1명(윤남경), 대전시교육청 1명(이은정), 강원교육청 2명(류화·정보람), 전남도교육청 4명(김은지·이수인·강소현·이보라), 경북도교육청에서 3명(최수진, 강은민, 신지현)이 각각 합격했다.

이로써 미용과학과는 2003년 처음 실시된 중등 미용교사 임용고시에서 5명, 2004년 임용고시에서 3명, 2005년 임용고시에서 2명의 교사를 배출했으며 2006년 합격자까지 총 20명의 전국 미용교사를 100% 배출하는 진 기록과 함께 2007년 8명, 2008년 9명, 2011년 5명, 2012년 3명, 2014년 12명의 신임 미용교사를 배출해 11년 연속 전국 정상을 차지했다. /채희종기자 chae@

‘자유학기제’ 입시위주 교육 벗어나 꿈 키운다

평가방법 주제로 포럼... 행복한 학교생활 기대 수업방법 개선 효과 속 교사 업무량 증가 우려

지난해 광주 동신중·서석중 등 전국 46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처음 도입해 시범 운영했다. 눈에 띄는 특징은 이들 학교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학력이 뒤처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우’라고 단언한다. 오히려 중간·기말고사가 지필고사 위주의 단순 교과 지식을 평가하는데 반해, 자유학기제 학교는 학업성취 과정에서 보여준 수업태도·노력·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및 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평가 방법을 주제로 10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자유학기제 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 광주시교육청, 한국교육평가학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주제발표를 한 지은림 경희대 교

수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평가를 시도해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며 “새로운 평가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학교현장에 정착한다면 학생들이 꿈과 끼를 기르며 수업하는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학기 평가가 기존 지필고사와 차별화된 특성은 학생의 교과 학업성취 수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 교수는 강조했다. 학생들의 학업 발달과 함께 자기주도적 학습력, 창의인성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유학기 평가모델로 형성평가(피드백), 협력형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학생 자기평가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한 광주 동신중 정호경 교감은 “동신중의 경우 평가의 변화가 수업방법의 개선을 이끌어냈다”며 “평가결과를 제출하기 위해 토론수업·활동중심 수업을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서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자유학기제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자유학기제 평가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학생들과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었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정 교감은 “자유학기제는 평가를 하지 않는 학기가 아니라 줄세우기나 결과만을 중시하는 일제식 지필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가르치고 배우는 흐름 속에 녹아든 평가 본연의 역할과 필요성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평가 방법의 변화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종재 광주시교육청 장학사는 “학기당 5회 내외의 수행평가와 결과 처리, 학기말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꼼꼼히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폭증한다”며 “이같은 부담이 교사의 자유학기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통 교과담당 교사 1명이 맡는 학생 수가 300명 안팎이라고 할 때, 300명에 대해 제각기 수행평가 결과와 생활기록부를 서술형으로 기록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있다.

반면, 학부모의 요구는 높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그럴듯한 좋은 말로 가득 채워진 생활기록부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한다는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호남충청권지부 개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호남충청권지부(지부장 이병호)가 최근 광주 서구 삼부지구 랜드피어 오피스텔 214호에 사무실을 마련,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공제회는 재난 발생 시 교육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와 대구에 지역사무실을 설치했다.

호남충청권지부는 광주와 전남·전북·충남·충북지역 교육시설 복구와 보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도서·벽지 학교가 많은 호남

지역의 경우 서울에서 파견되는 시일이 걸려 피해현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는 등 현장파악과 복구에 애로가 많았다. 광주에 지역사무실 설치됨에 따라 신속한 현장 파악과 피해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수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장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축해 각급 학교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학교 피해 발생시 수업과 교육행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서영대, 청년강소기업체험 운영기관 선정

서영대학교(총장 김정수)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선정됐다.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직장체험을 통해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이 하계방학(2개월)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하며, 참여기업에게는 연수지원경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홈페이지서 ‘우리 땅 독도’ 만나다

‘독도수호특별전’ 자료 게시... 교육자료 무료 제공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기 위해 9년째 추진해 오고 있는 ‘우리 땅, 독도수호특별전’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독도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호남대학교는 최근 대학 홈페이지(www.honam.ac.kr)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 고지도와 공식문서와 우리 역사자료, 독도 생태사진 등으로 구성된 ‘우리 땅 독도’ e-book을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땅 독도’ e-book에는 구한말 을릉도 독도 초기 개척민 대부분이 전라도 사람들이었으며, ‘독도’라는 섬 이름 역시 전라도 방언 ‘독(돌)섬’

에서 연유됐음을 밝힌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 자료와 독도관련 수능예상 문제 등 다양한 독도관련 자료가 담겨있다.

특히 호남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의 ‘전라도인의 을릉도 개척사’ 학술 연구 자료는 “버려진 섬을 먼저 취해 영토화 했다”는 일본의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귀중한 학술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호남대학교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 본격화되던 지난 2005년, 일본의 역사 왜곡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일본 교과서 왜곡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어 2006년에는 광주에서 개최된 ‘6.15 통일축전’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땅, 독도수호특별전’을 개최한 이래 지

금까지 9년 여 동안 전국순회전시와 특강을 이어가고 있다.

호남대학교의 독도특별전은 독도 사진이 주를 이루는 일반전시와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70여점의 전시자료 중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고지도와 국제문서 및 정부 문서가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독도가 명백한 한국 영토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서강석 총장은 “역사바로세우기와 영토주권 확립이야말로 미래세대가 반드시 학습해야 할 교육과제”라며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이 도를 넘어서 호남대가 수년간 축적해 온 다양한 독도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모든 국민들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15평(실 9평) 1세대

- 15층, 무등산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감정가 4,500만원
- 급매가 3,500만원

38평(실 22평) 1세대

- 2층, 하천 쪽, 사무실 전용
- 시세/감정가 1억 5,000만원
- 급매가 1억원

77평(실 44평) 1세대

- 20층, 최상층, 전망 좋음, 사무실 전용, 올수리
- 시세/분양가 3억원
- 급매가 2억 5,000만원

29평(실 18평) 3세대

- 10/12/13층, 하천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분양가 1억원
- 급매가 6,500만원

53평(실 33평) 1세대

- 13층, 양동/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사무실 전용, 올수리
- 시세/분양가 2억원
- 급매가 1억 5000만원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문의 010-4667-9300

- 관리비 평당 7,000원, 대형주차장 완비
- 개별 냉/난방 시설

경매 투자

-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주1회, 3개월 완성
- ▶ 교육비,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